

部分이다. 그런데 ① ㄷ字形 또는 一字形으로 된 支石(足石)構造는 元來 그런 것이 아니라, 盜掘者들이 口字形支石을 一面乃至二面을 破壞開放한 것이라고도 하고 ② 또는 多數한 ㄷ字形·一字形의 支石構造의 支石臺가 모두 前記盜掘者의 所行이라고 斷言할 수 없는 것이며 元來의 形態라고主張하는 등 여러 學者의 論說이 있다.筆者는 여러 곳의 支石臺를 調査한 經驗을 通하여 後者를 追從한다.

- ⑤ 拙稿「瑞山仁旨面先史遺跡調査報告」(古文化 第三輯)
- ⑥ 金元龍著 韓國史前遺跡遺物地名表「保寧郡」條
- ⑦ 拙稿「湖西地方의 先史遺跡調査」(考古美術 第四卷 第八號)
- ⑧ 三上次男 前掲書
- ⑨ 三上次男 前掲書
- ⑩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昭和十七年度)
- ⑪ 金元龍「論山陽村面の支石墓群」(考古美術 第一卷 第三號)

求禮郡 馬山面 상사돌리石塔

申 榮 勳

一九六一年秋 華嚴寺附近 遺蹟들을 踏査하였다. 華嚴寺洞口 馬山面에서 遺蹟을 향하고 서면 오른손 편으로 셋길이가 있다. 九折羊腸草路가 山麓으로 뻗었는데 길 끝에 貯水池가 있고 그 앞에 상사돌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貯水池 뒤편 松林사이 李氏宅齊室(?)이라는 瓦家가 한채 있고 그집 오른쪽 구석으로 一間斗屋이 보인다. 쪽문을 열고 무심히 들어서면 집에 가득찬 石造如來坐像과 맞부딪친다. 完形에 가까운 蓮華臺座에 結跏趺坐한 當當한 體軀의 부처님이 降魔觸地印을 한채 근엄하게 굽어 본다. 이 집 앞에 낮고 막하고柔弱하게 보이는 三層石塔(花崗石製) 一基가 놓였다. (如來像·石塔原位置는 確認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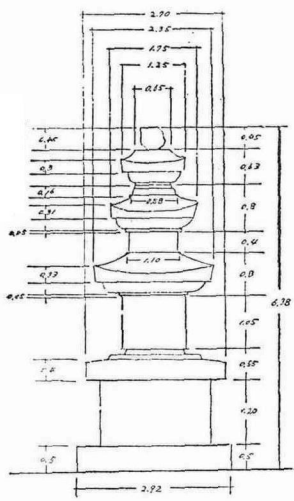
現存하는 塔形이 完存인지는 分明치 않으나 地上에는 甲石形의 板石

이 있고 그 위로 基壇 한 단이 놓였다. 壁石은 四枚石을 어긋매씩 놓았고 그 위로 一枚의 甲石이 놓였는데 倒置된 듯하다. 一塊석의 初層塔身·同蓋石과 二層의 身과 蓋 그리고 三層蓋石이 있다. 그 사이에 놓인 三層塔身은 適當치 못한 部材가 硃漆인 듯하다. 三層蓋石위의 相輪部는 없�졌고 擦柱孔만 남았는데 누군가 거기에 조고만 돌을 올려 놓았다. 石塔을 쳐보면 羅代以來 通式으로 傳하여지는 樣式이 아닌 異質의 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塔身에 隅柱(Angle Post)가 없고 蓋石처마 밑 層級받침이 省略되고 그部分을 興法寺廉居和尚塔類의 처마 밑처럼 불림 있는 曲面으로 處理하였다. (挿圖參照) 曲面下段에 臺形薄帶를 두어 塔身을 받쳐하는 力點을 둔 것도 注目된다.

그 蓋石의 形像은 井邑隱仙里三層石塔처럼 直線의 이지 않고 泉谷寺址七層石塔같이 檐裡를 斜面한 것도 아니며 月南寺址塔의 軒下處理와 도다 르게 多分히 曲線의 이다. 이 蓋石은 百濟系類形의 殘影을 가진 마치 庇仁五層塔·長殿里三層塔 등과 그 始源인 定林寺址塔과 흡사한 점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塔蓋의 그 날선한 線은 이 塔에서 찾을 수 없고 落水面같은 곳은 高麗期 他地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鈍重한 灣曲線을 가진 塔과 비슷하다. 轉角部가 두드러지게 強調된 것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檐裡曲面도 前記 三塔처럼 긴장하여 단단히 오르러진 形象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선히 해이하여 저서 퍼드러진 그런 모습을 하였다. 蓋下面

가장자리 조고만 간 격만 남겨 놓고는 全面을 이 曲面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밑 臺狀剝出部도 자신 있는 處理를 하지 못하고 흥내만 낸 듯 슬쩍 모



양만 비치고 말았다. 前記 百濟系石塔은 이 部分을 別造한 三枚石을 重疊成形하였는데 상사돌리탑은 一塊石만으로 雕出하였다.

이 탑은 前述한 바와 같이 隣近塔婆와 같이 新羅系의 樣式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百濟系의 類形을 忠實히 模倣한 것도 아닌 中間形의 作品이다.

이와같은 異例的인 作品이 왜 이 山麓에 자리잡게 되었는지의 解明을 文獻에서 찾을 수가 없어 未洽한채이나 그것이 여기 있다는 事實만으로 여러가지 問題가 提起된다.

地理的으로 羅·濟의 接境地 特殊性이 云謂될 수 있겠고 樣式上으로 木造塔婆에서 石造塔婆로 手法이 變案되었을 때 여러가지 系類가 派生되어 온중 이와 같은 塔들이 차지하는 또 하나의 장르가 있었지 않나하는 疑問點을 想起시켜 주기도 한다.

羅·濟國 接境地 特殊性이 形成되었는지 未詳하나 隣近 華嚴寺의 巨大한 石塔들이 모두 新羅系에 속하는 것들인데 唯獨이 塔만이 特殊性帶에 屬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일이므로 地理的인 條件은 製塔時 作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至近한 華嚴寺塔의 先例를 버리고 멀리 扶餘等址의 石塔形을 模倣한 듯이 보이게 만는 要因은 어떤 것일까.

서울大學校博物館藏石塔材①·海雲臺發見石塔材②·實相寺百丈庵石塔·雙峰寺微纒國師塔(八角圓堂形類)에 屬하는 石塔樣式은 彌勒寺址塔·定林寺址塔·芬皇寺址塔과는 분명히 그 類形을 달리한다. 이러한 類形은 中國에서도 發達을 보아 博塔이지만 不造建物の 細部를 分明히 表現하고 있다.③

工藝塔중 土塔·臘石製類小形塔등 新羅系石塔·博塔을 模倣한 것도 있지만 銅製塔 中에는 木造建物を 충실히 본떠서 만든 것도 있다. 이러한 一聯의 作品活動은 어떠한 底力에 의하여 領導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百丈庵塔을 現世의 代表로 하는 이러한 장르의 塔과 定林寺址塔을 宗主로 하는 塔形이 接合되었을 때 또 하나의 塔形이 派生된다고 假定한다면 上사돌리 塔式의 簡素化法이 抽出될 수도 있었던 것이나 아닐까 생

각 되어진다.

좀더 많은 上사돌리 塔式의 遺例가 發見된 후에 再考해 불만한 問題라 하겠다.

上사돌리 塔은 高麗期 作品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나 石造如來坐像과 相考하여야만 좀더 分명한 實年代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註

- ① 拙稿「서울大博藏木造樣式의 石塔片」本誌五六·五七合併號
- ② 拙稿「木造樣式의 石塔材新例」本誌四七·四八合併號
- ③ 嵩山會善寺淨藏禪師塔等

考古美術 卍—

◎ 文化財委第一分委 第十五次 會議

一九六七年十一月十六日 午後二時 文財局長室에서 開催 李弘植, 金宰基, 金允基, 鄭寅國, 裴吉基, 崔淳雨, 秦弘燮, 諸委員出席討論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光化門復元工事推進

大統領 指示에 依하여 早速히 元位置에 復元되는 이 工事を 爲하여 過去の 光化門復元設計檢討會議를 解消하고 새로히 光化門復元工事推進委員會(假稱)를 設置하기로 함.

二、灌燭寺石造彌勒菩薩立像補修 可

面相의 部分的 龜裂 復原補修와 頭上部의 시멘트몰탈 除去

三、扶餘扶蘇山城 및 陵山里古墳群內 墳墓移葬 및 毀損地區 復原工事

崔淳雨委員 現地調査後 處理할 것.

四、密陽小臺里五層石塔 保護柵設置工事 否 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 碑閣補強工事

事由 代替할 것.

五、文化財海外展示 否

논해이 오를로所在 한, 各協會에서의 要請

六、無量寺極樂殿 補修用假屋設計 採擇

七、箭串橋 保護區域 四方三〇m